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0차 CATI조사

제95차 ARS조사

97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7.1	39.3	23.1	10.5
ARS	32.8	38.6	20.6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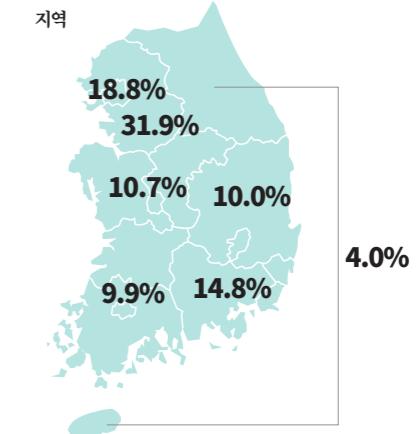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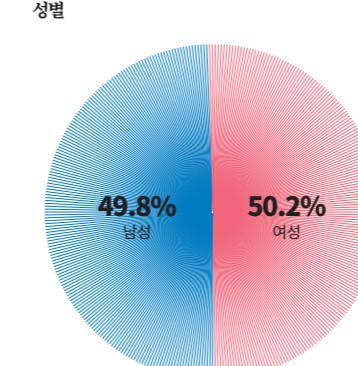
● 진보 ● 중도 ● 보수 ● 절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6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8)제공 무선기장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7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2.3% [총 통화시도 8,172명]
조사기간	2024년 8월 16일 ~ 8월 1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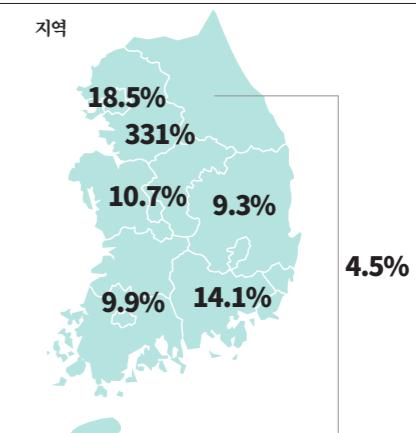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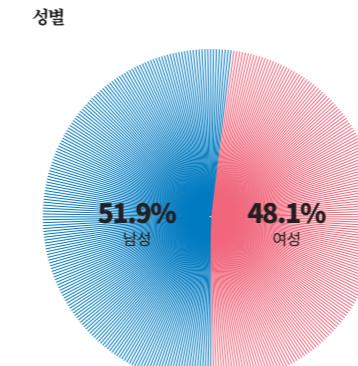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00	49.8	495	49.3	0.99
여성	504	50.2	509	50.7	1.00
연령					
18~29세	160	15.9	158	15.7	0.98
30대	151	15.0	149	14.8	0.98
40대	181	18.0	177	17.6	0.97
50대	195	19.4	197	19.6	1.01
60대	174	17.3	176	17.5	1.01
70세이상	143	14.2	147	14.6	1.02
지역					
서울	189	18.8	188	18.7	0.99
인천경기	320	31.9	321	32.0	1.00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8	10.8	1.00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100	10.0	98	9.8	0.98
부산울산경남	149	14.8	149	14.8	1.00
강원제주	40	4.0	42	4.2	1.05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7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0% [총 통화시도 51,097명]
조사기간	2024년 8월 16일 ~ 8월 17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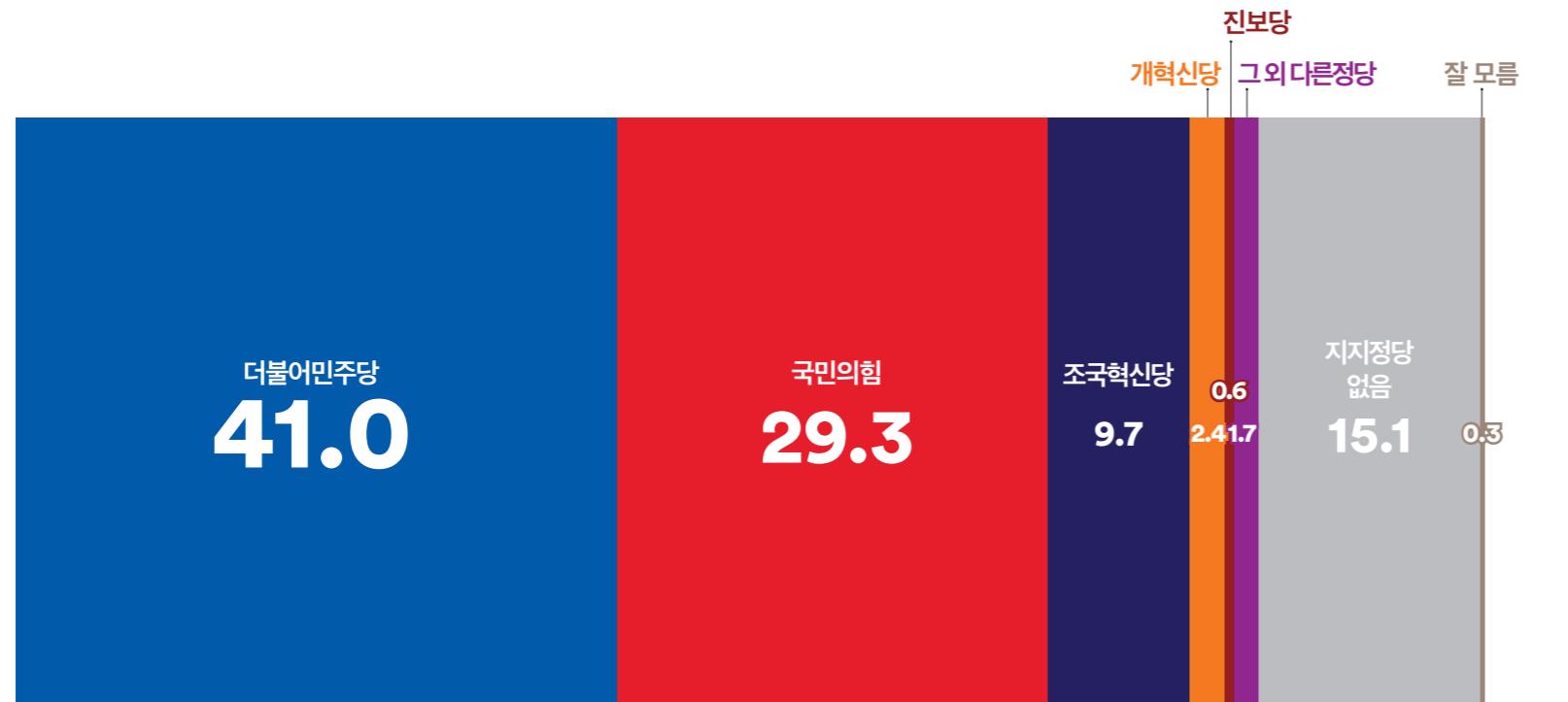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한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21	51.9	495	49.3	0.95
여성	483	48.1	509	50.7	1.05
연령					
18~29세	108	10.8	158	15.7	1.46
30대	137	13.6	149	14.8	1.08
40대	193	19.2	177	17.6	0.91
50대	213	21.2	197	19.6	0.92
60대	192	19.1	176	17.5	0.91
70세이상	161	16.0	147	14.6	0.91
지역					
서울	186	18.5	188	18.7	1.01
인천경기	332	33.1	321	32.0	0.96
대전세종충청	107	10.7	108	10.8	1.00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3	9.3	98	9.8	1.05
부산울산경남	142	14.1	149	14.8	1.04
강원제주	45	4.5	42	4.2	0.93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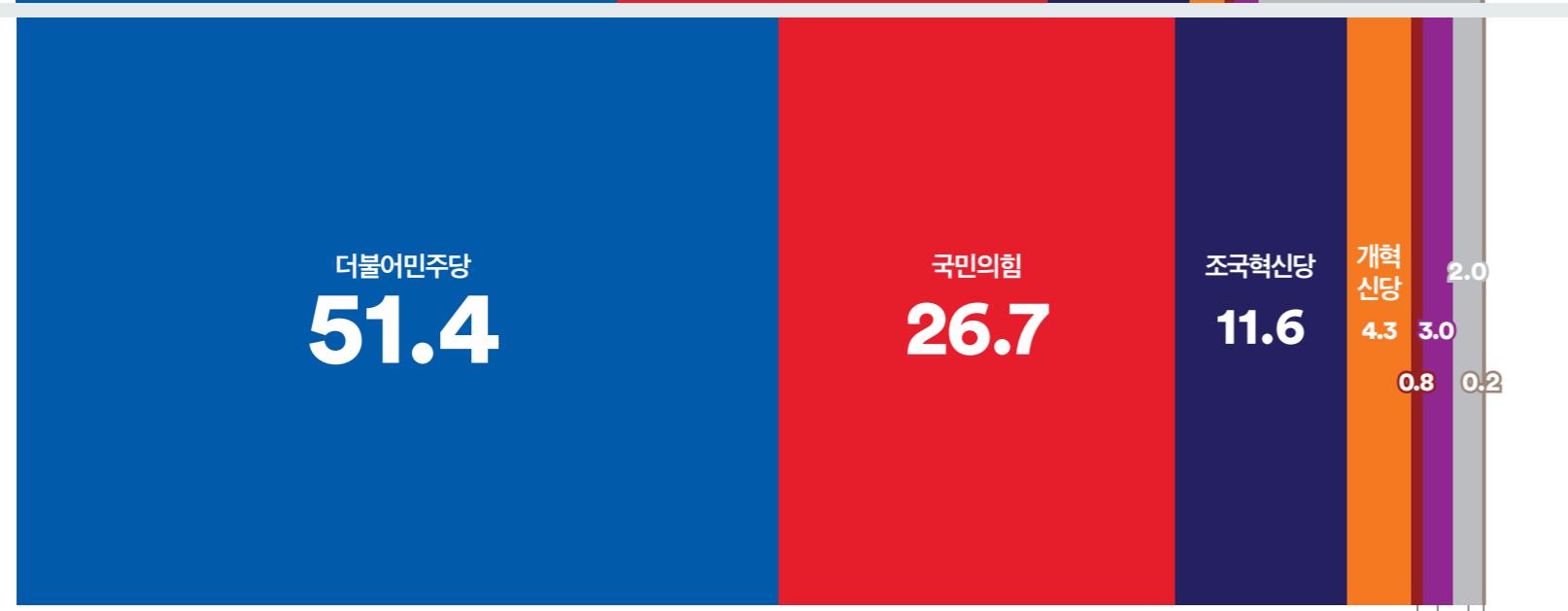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30.2	42.5	49.0	53.9	39.6	25.8
보수	18.6	19.0	15.8	18.9	45.0	62.4
중도	42.5	6.0	18.5	18.4	6.3	5.5
잘모름	42.5	5.5	11.2	5.9	7.2	5.5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중도	11.1	6.1	18.1	16.9	10.3	5.0
잘모름	10.5	8.1	1.0	1.0	1.0	5.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8.0	54.0	62.8	55.3	52.4	32.3
보수	19.9	22.8	15.1	23.6	33.1	48.5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권역 서울 47.0 24.2 9.1 1.5 13.3

인천·경기 43.2 26.7 8.1 1.5 16.3

대전·충청·세종 46.4 27.7 10.8 1.5 12.5

광주·전라 53.2 13.3 15.8 1.5 14.6

대구·경북 19.6 42.7 10.3 6.0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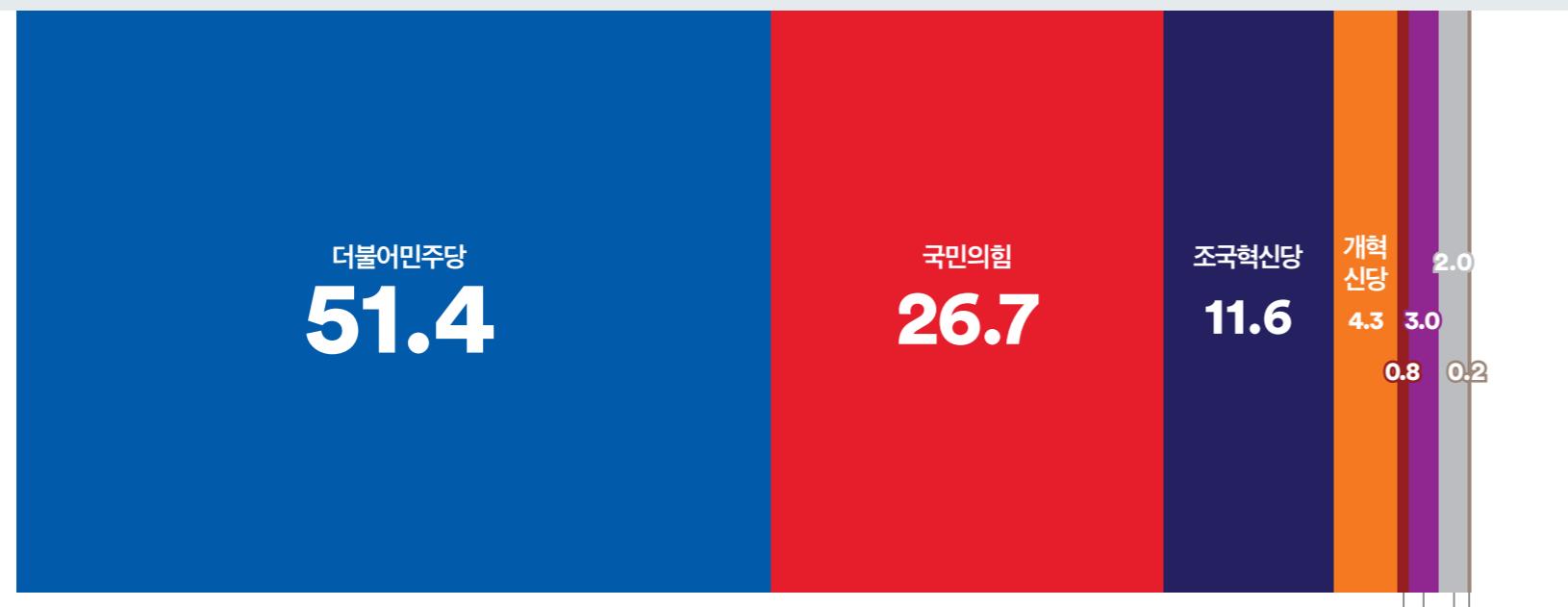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33.4 40.7 8.7 1.5 13.9

강원·제주 31.7 40.9 9.5 1.5 16.1

성별 남성 42.0 26.1 9.3 1.5 16.1

여성 40.0 32.3 10.1 1.5 14.1

ARS



권역 서울 50.5 29.4 9.4 1.5 1.5

인천·경기 56.0 23.3 10.1 1.5 1.5

대전·충청·세종 47.4 35.1 9.9 1.5 1.5

광주·전라 61.6 5.3 24.8 1.5 1.5

대구·경북 38.5 41.3 11.2 1.5 5.1

부산·울산·경남 48.8 28.7 10.4 6.6 1.5

강원·제주 46.5 27.4 11.0 11.0 1.5

성별 남성 47.7 27.7 12.1 6.8 1.5

여성 55.0 25.7 11.0 1.5 1.5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앞서거나 우세

TK권의 경우, 두 조사 모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비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호남권(ARS PK 포함)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CATI조사는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ARS조사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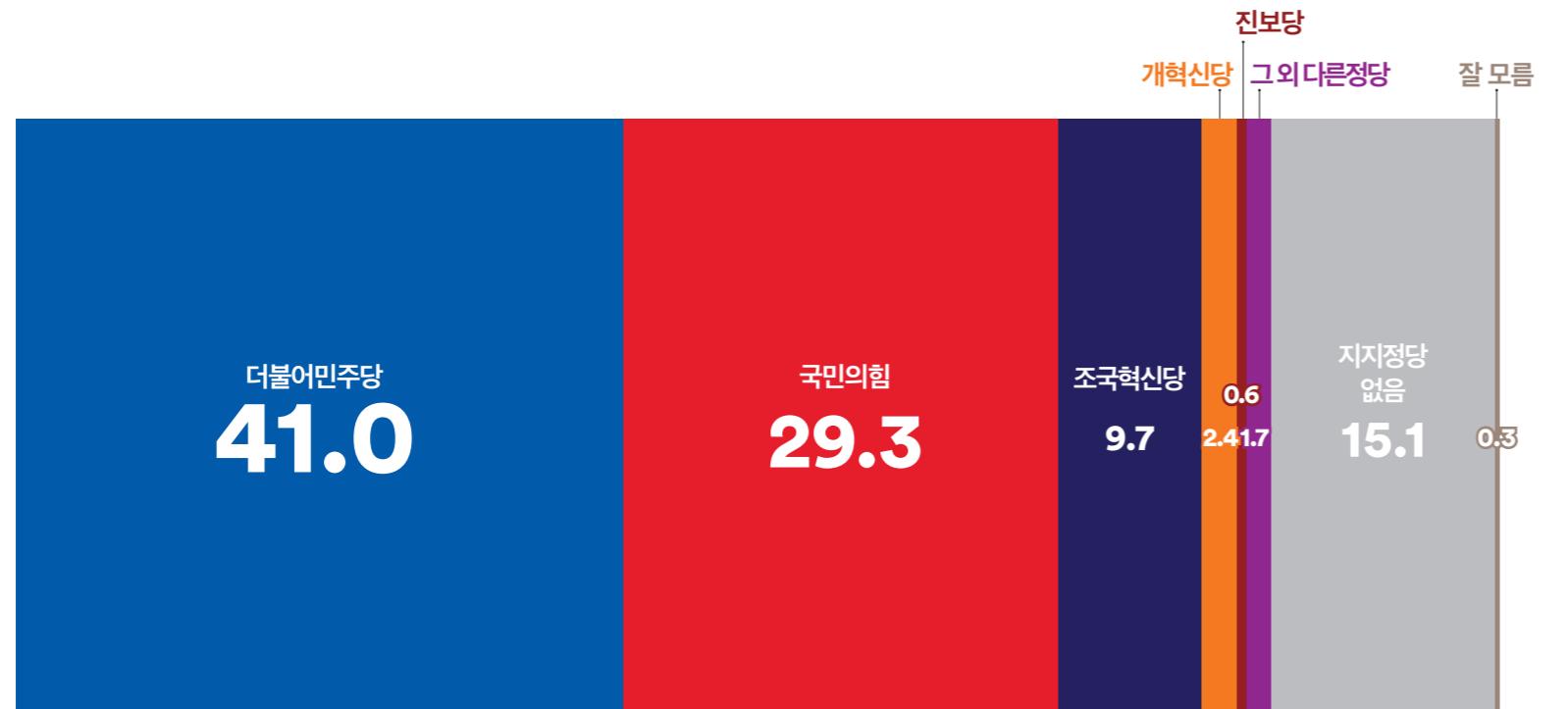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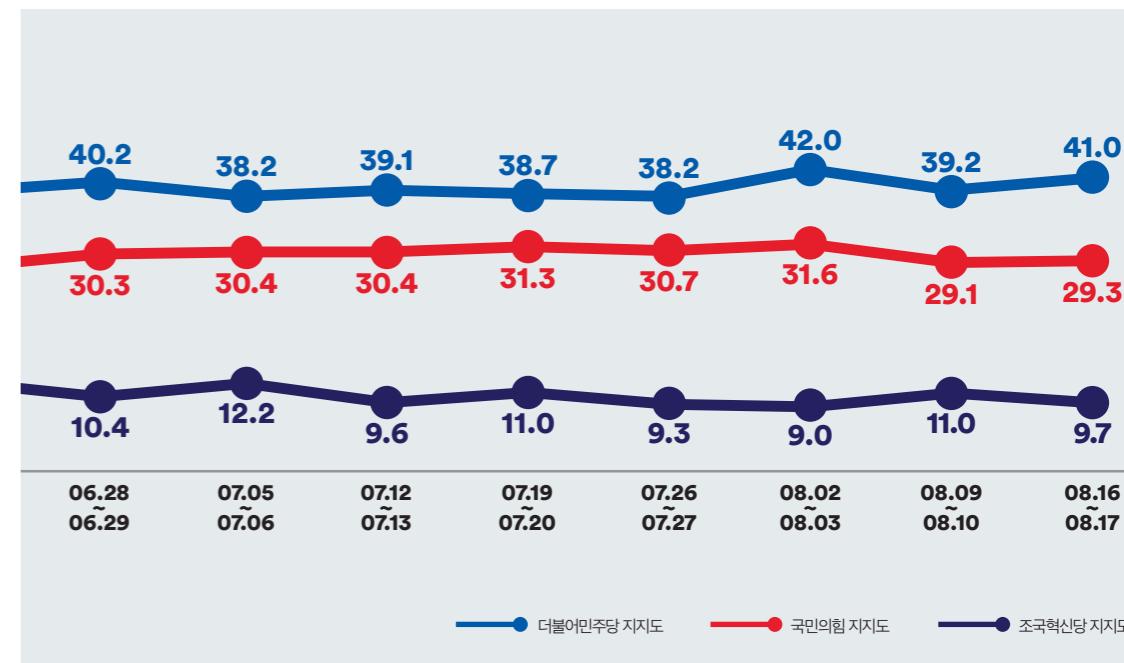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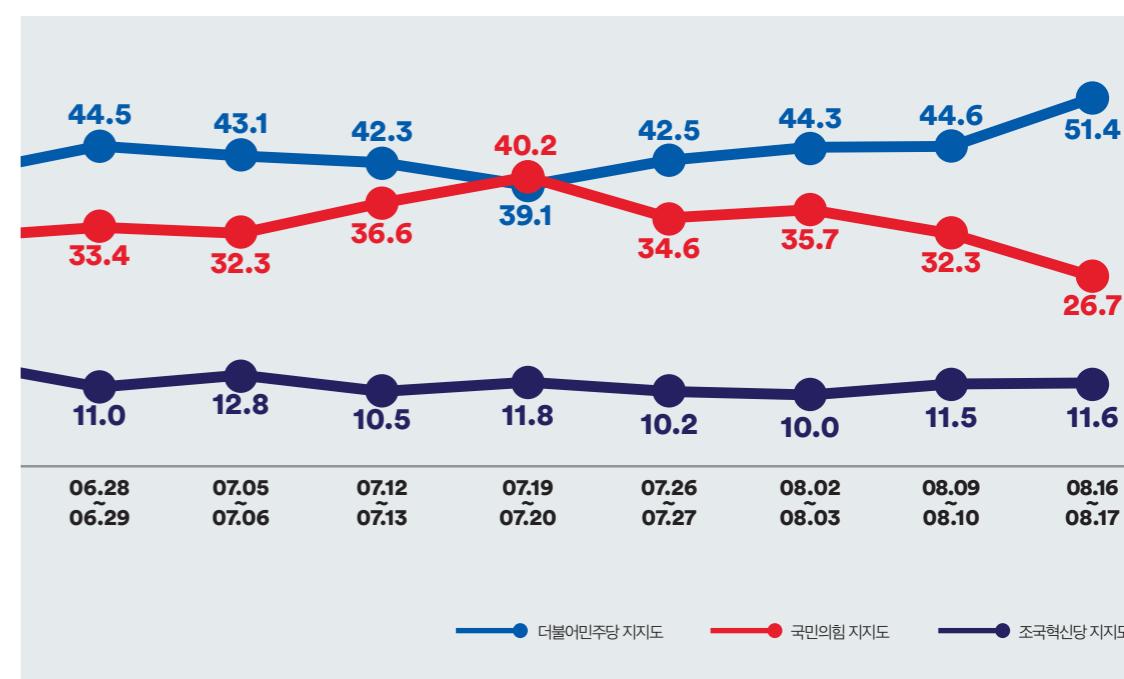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1.5%, '국민의힘' 19.9%, '조국혁신당' 13.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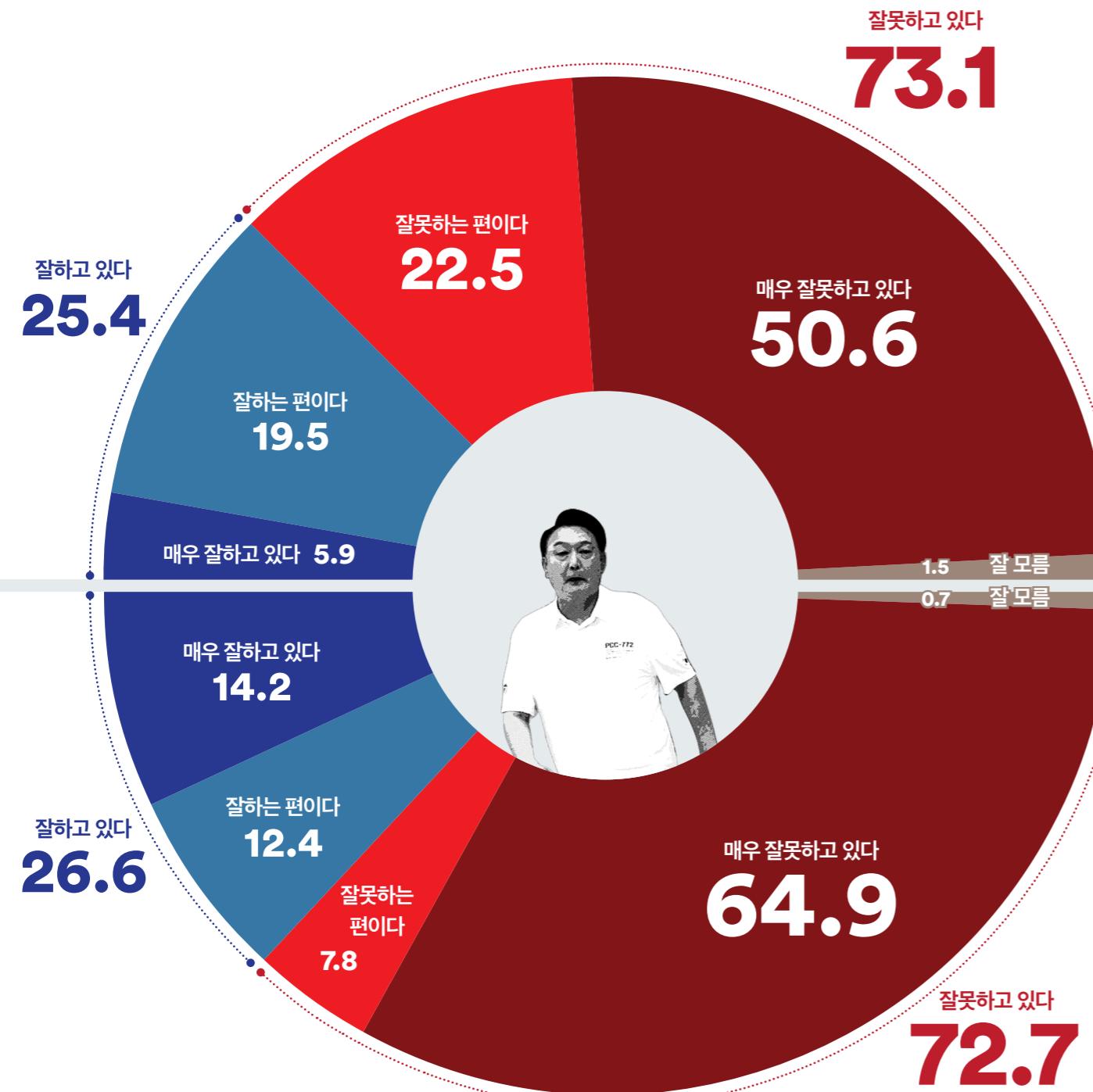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9.0%, '국민의힘' 24.3%, '조국혁신당' 14.5%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4.7%p(79차: 30.3%p), ARS 39.2%p(94차: 31.6%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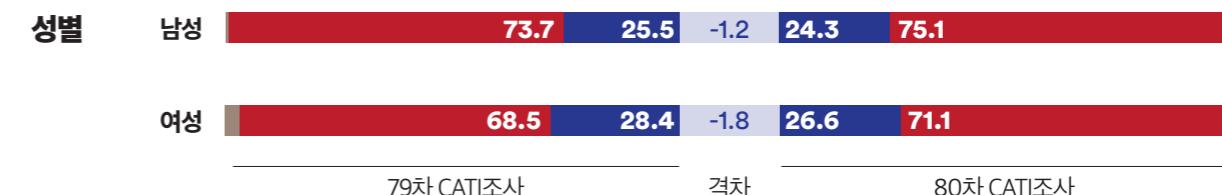


지난 79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5%p 하락, '부정' 평가 2.0%p 상승(격차 47.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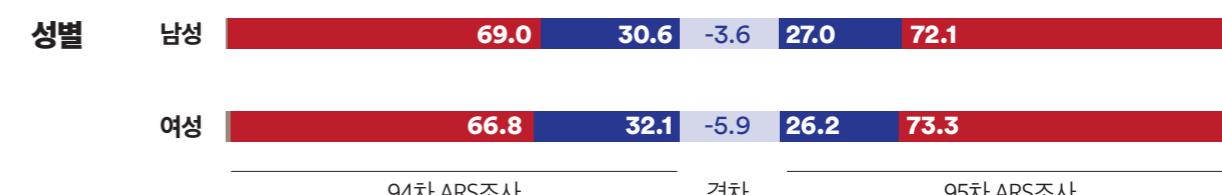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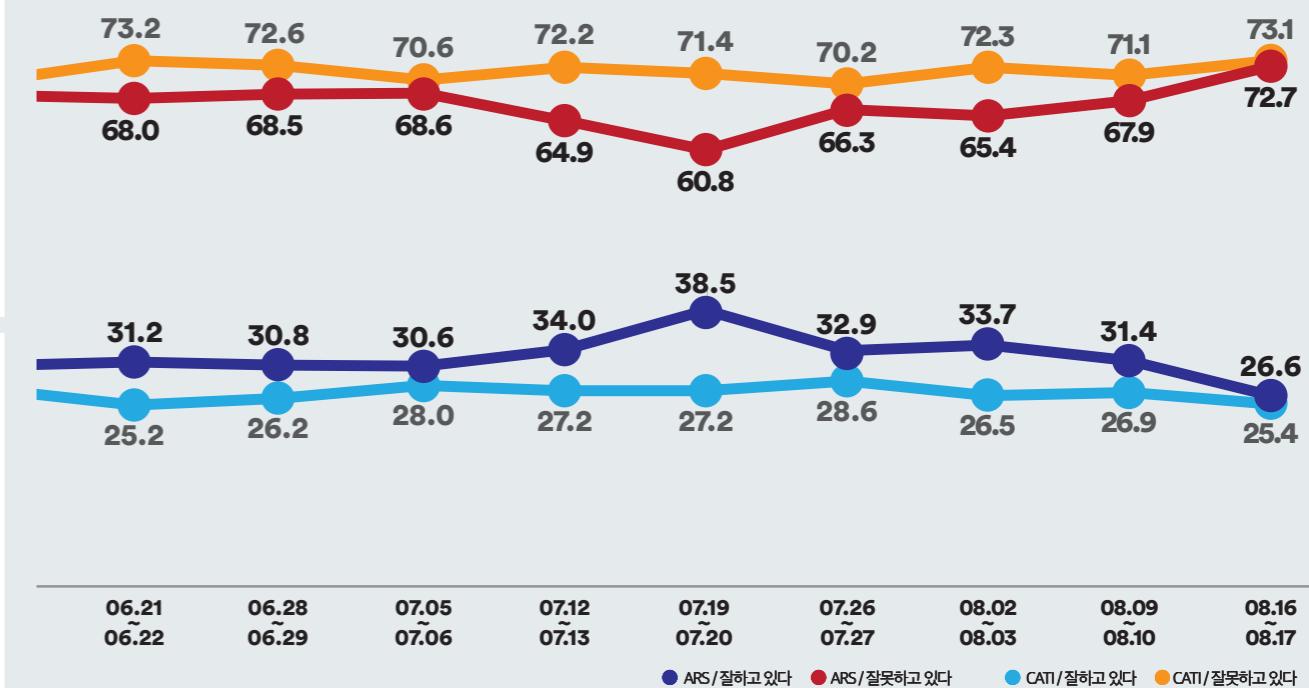
지난 94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4.8%p 하락, '부정' 평가 4.8%p 상승(격차 46.1%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4.5%p(지난 조사: 57.7%p), ARS 53.3%p(지난 조사: 4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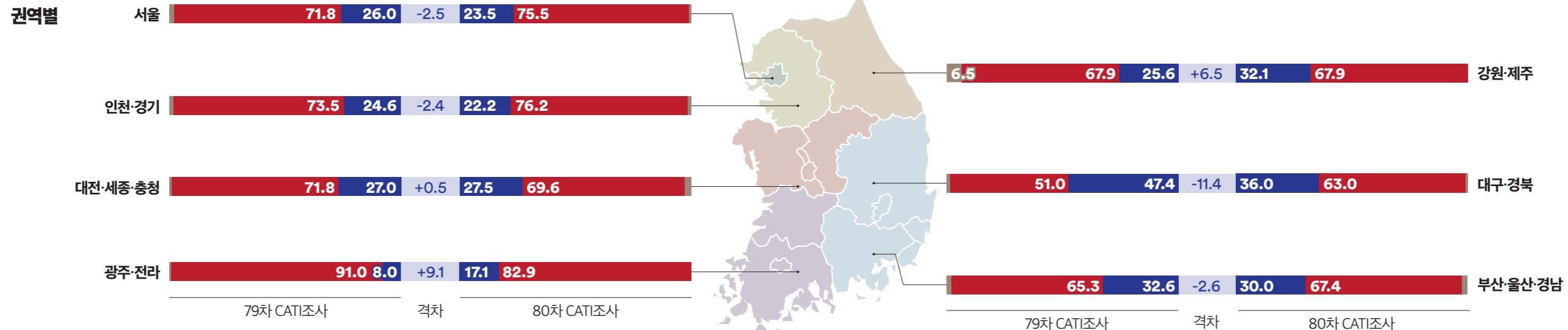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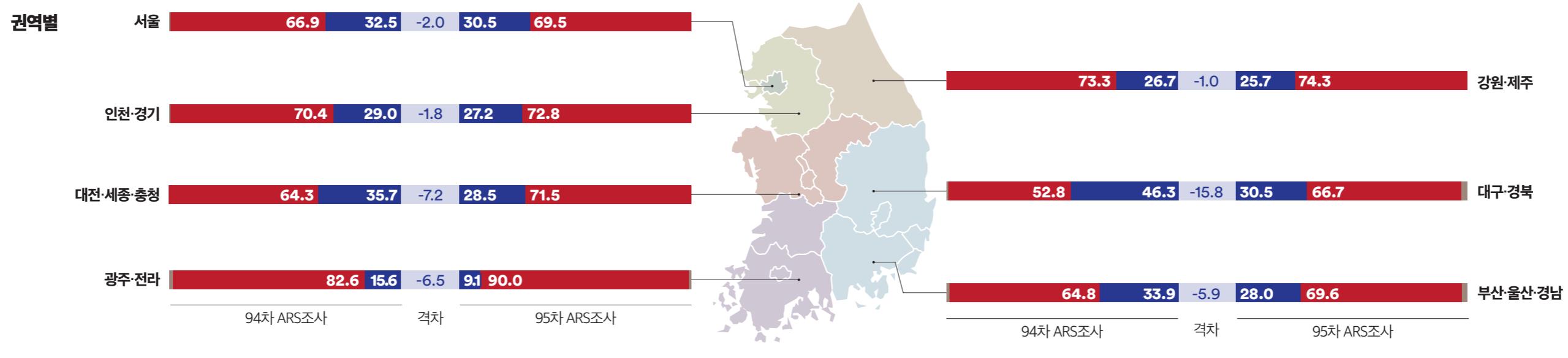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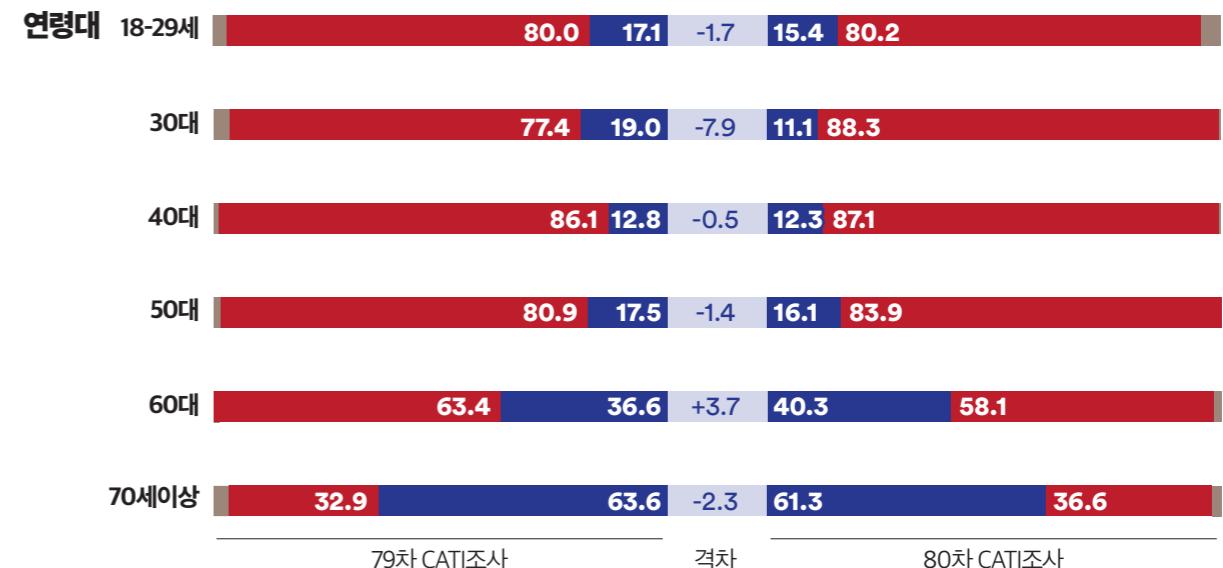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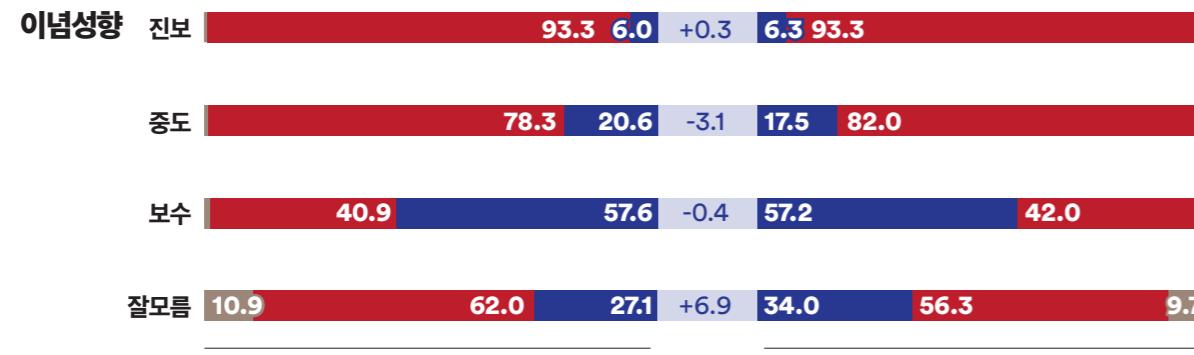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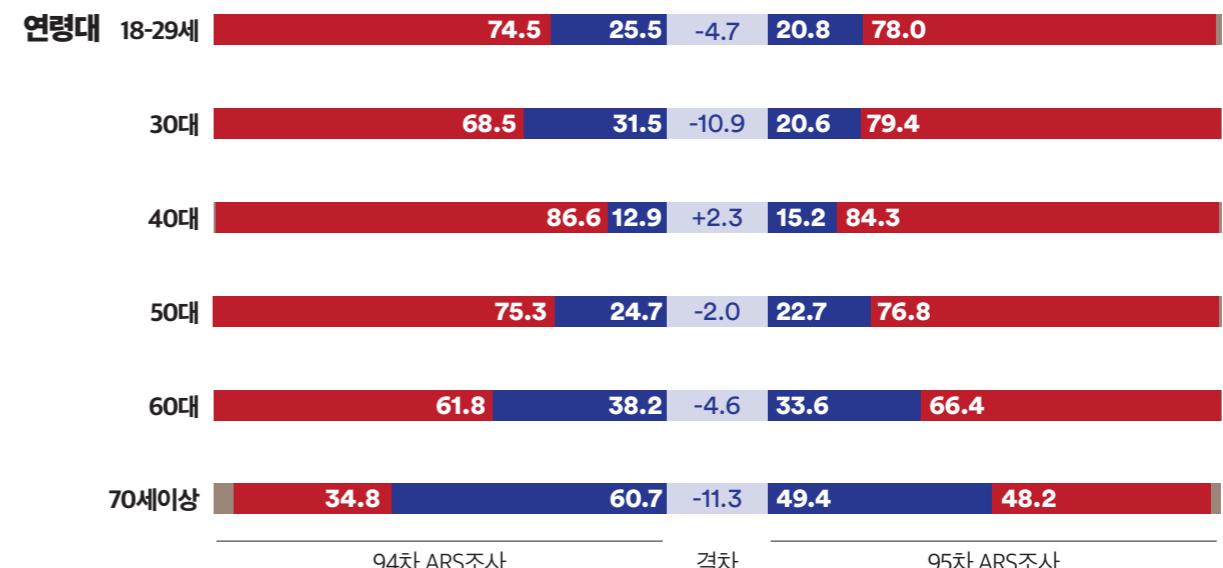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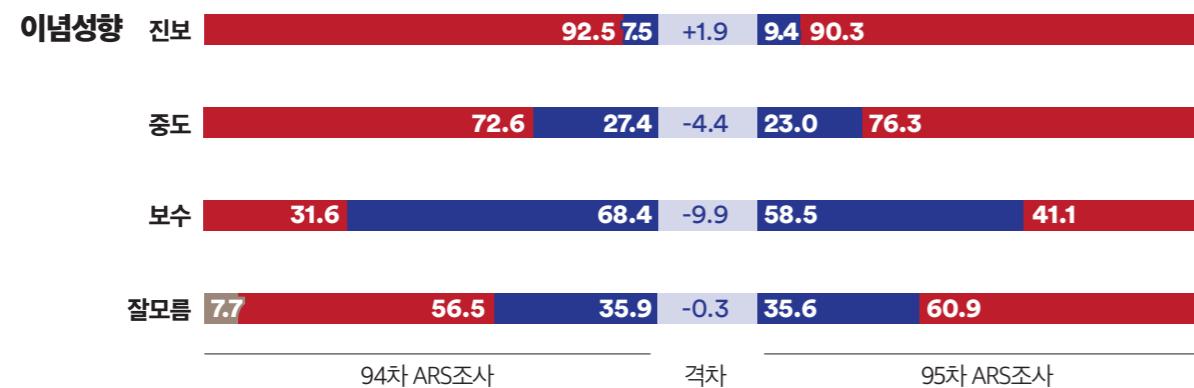
■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적절성

Q.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군사관학교에 두면 안되며,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형석씨를 임명했습니다. 이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CATI



ARS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김형석씨에 대한 임명 적절성을 물어본 결과
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63.5%p, ARS 52.3%p)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CATI조사는 박빙, ARS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보수층은 CATI조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적절 33.9%, 부적절 53.5%), ARS조사는 박빙(적절 41.4%, 부적절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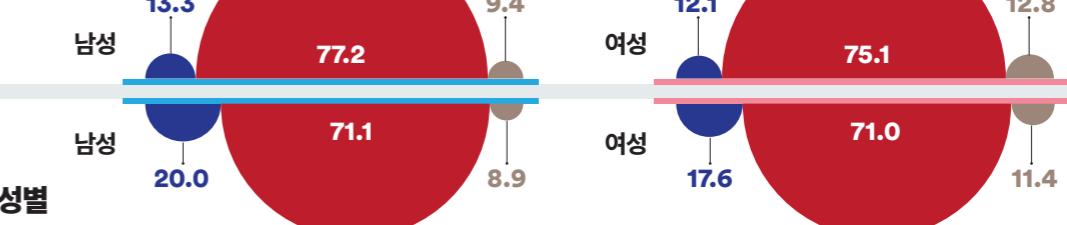
권역

서울	10.7	76.4	12.9
인천·경기	13.5	79.6	6.9
대전·충청·세종	11.5	78.2	10.3
광주·전라	7.9	85.3	6.8
대구·경북	22.9	64.0	13.1
부산·울산·경남	11.7	71.9	16.4
강원·제주	9.5	66.1	24.4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6.2	
국민의힘	39.0	39.3
조국혁신당	99.1	
개혁신당	87.0	8.9
진보당	100.0	
그외 다른 정당	6.1	82.3
자지 정당 없음	75.1	21.0
잘 모름	72.3	27.7

성별



연령

18-29세	15.5	78.0	6.5
30대	17.1	75.5	7.4
40대	11.5	83.2	5.3
50대	16.1	77.8	6.1
60대	23.4	65.4	11.1
70세 이상	30.9	42.1	27.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3.2	
국민의힘	59.6	19.6
조국혁신당	96.2	
개혁신당	7.7	75.8
진보당	77.5	22.5
그외 다른 정당	35.6	47.3
자지 정당 없음	72.3	27.7
잘 모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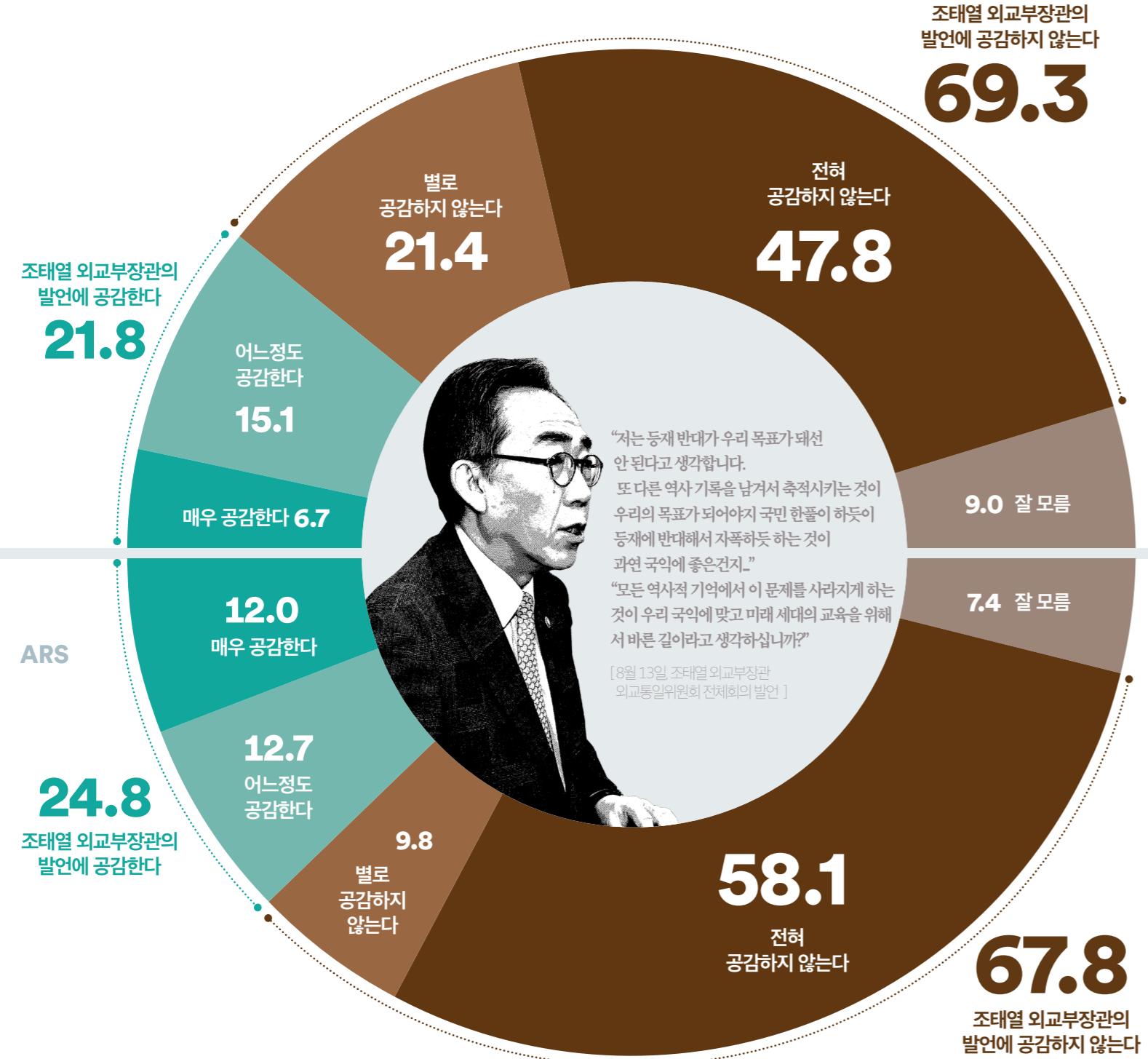
* 79차 CATI, 94차 ARS 조사 질문 결과

■ 적절하다 ■ 적절하지 않다 ■ 잘 모름

Q.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협상 과정에서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글종 외교라 지적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풀이 하듯 등재에 반대해 자폭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7.5%p, ARS 43.0%p)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변수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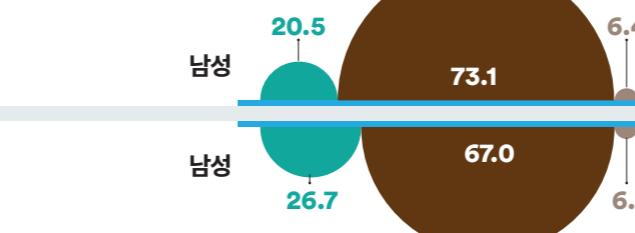
보수층은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임 (CATI 공감44.3%, 비공감 47.8% / ARS 공감 47.2%, 비공감 44.4%)

연령

18-29세	16.9	64.7	18.4
30대	15.7	71.0	13.3
40대	15.4	81.2	3.4
50대	15.9	79.4	4.7
60대	32.8	63.2	4.0
70세이상	35.3	51.7	13.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4	89.2
국민의힘	51.9	35.5
조국혁신당	5.1	92.7
개혁신당	20.9	71.2
진보당	17.0	83.0
그외다른정당	88.0	12.0
지지정당없음	18.3	63.2
잘모름	35.5	36.9



권역

서울	22.8	69.3	7.9
인천·경기	27.6	66.3	6.1
대전·충청·세종	26.5	66.5	6.9
광주·전라	9.7	84.7	5.6
대구·경북	30.3	57.4	12.3
부산·울산·경남	25.0	66.9	8.0
강원·제주	28.3	64.4	7.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8	89.9
국민의힘	70.0	19.6
조국혁신당	5.5	91.8
개혁신당	21.0	56.1
진보당	22.5	77.5
그외다른정당	35.4	43.4
지지정당없음	15.5	64.7
잘모름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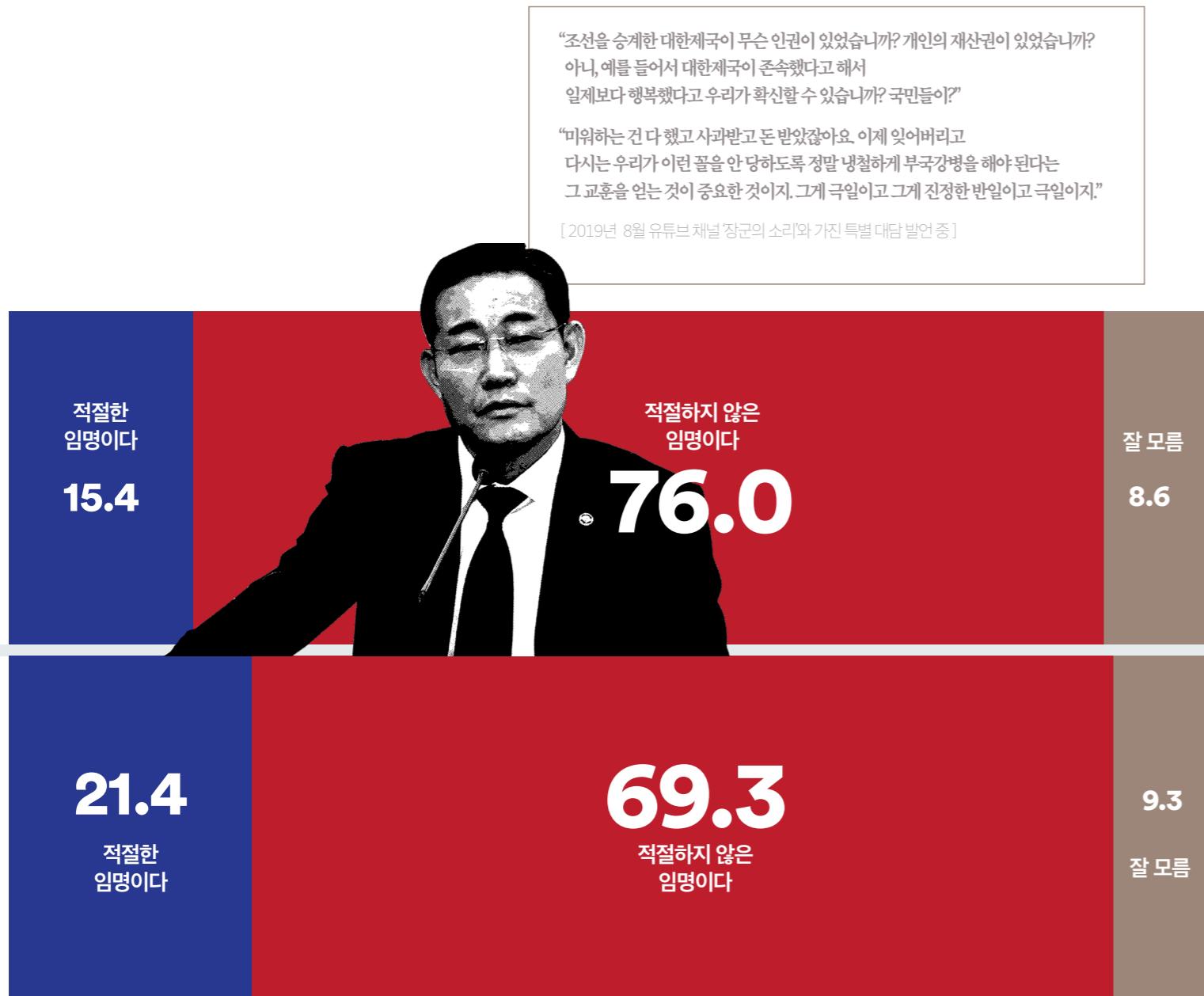
■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잘모름

국가안보실장 인사 적절성

Q.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게 된 신원식 장관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를 안보실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미워하는 건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잖아요.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하도록 정말 냉철하게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극일이고 그게 진정한 반일이고 극일이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와 가진 특별 대담'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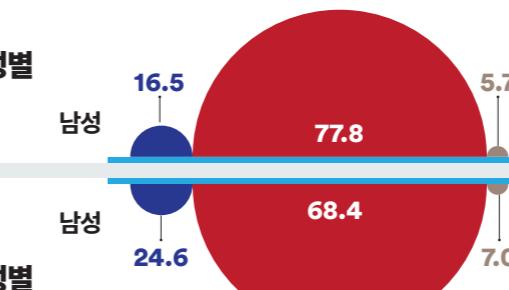
권역

서울	16.1	76.7	7.2
인천·경기	14.5	78.6	6.9
대전·충청·세종	18.1	76.3	5.6
광주·전라	6.1	84.2	9.7
대구·경북	20.9	68.4	10.8
부산·울산·경남	16.4	70.7	12.9
강원·제주	17.7	70.2	12.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6.0	
국민의힘	45.7	37.5
조국혁신당	97.9	
개혁신당	91.7	
진보당	100.0	
그외 다른 정당	12.0	82.1
자지정당 없음	6.8	79.1
잘 모름	35.5	64.5

성별



연령

18-29세	17.8	73.5	8.7
30대	21.0	72.4	6.6
40대	13.7	83.7	
50대	18.8	75.4	5.8
60대	25.5	64.9	9.6
70세 이상	33.4	41.3	25.2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2.8	
국민의힘	67.0	15.8
조국혁신당	92.6	
개혁신당	10.0	69.0
진보당	11.3	88.7
그외 다른 정당	33.8	51.8
자지정당 없음	67.8	
잘 모름		100.0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겠느냐”고 말한 신원식 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ARS는 10명 중 7명 정도)은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응답(격차: CATI 60.6%p, ARS 47.9%p)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ARS 70대 포함)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적절’ 응답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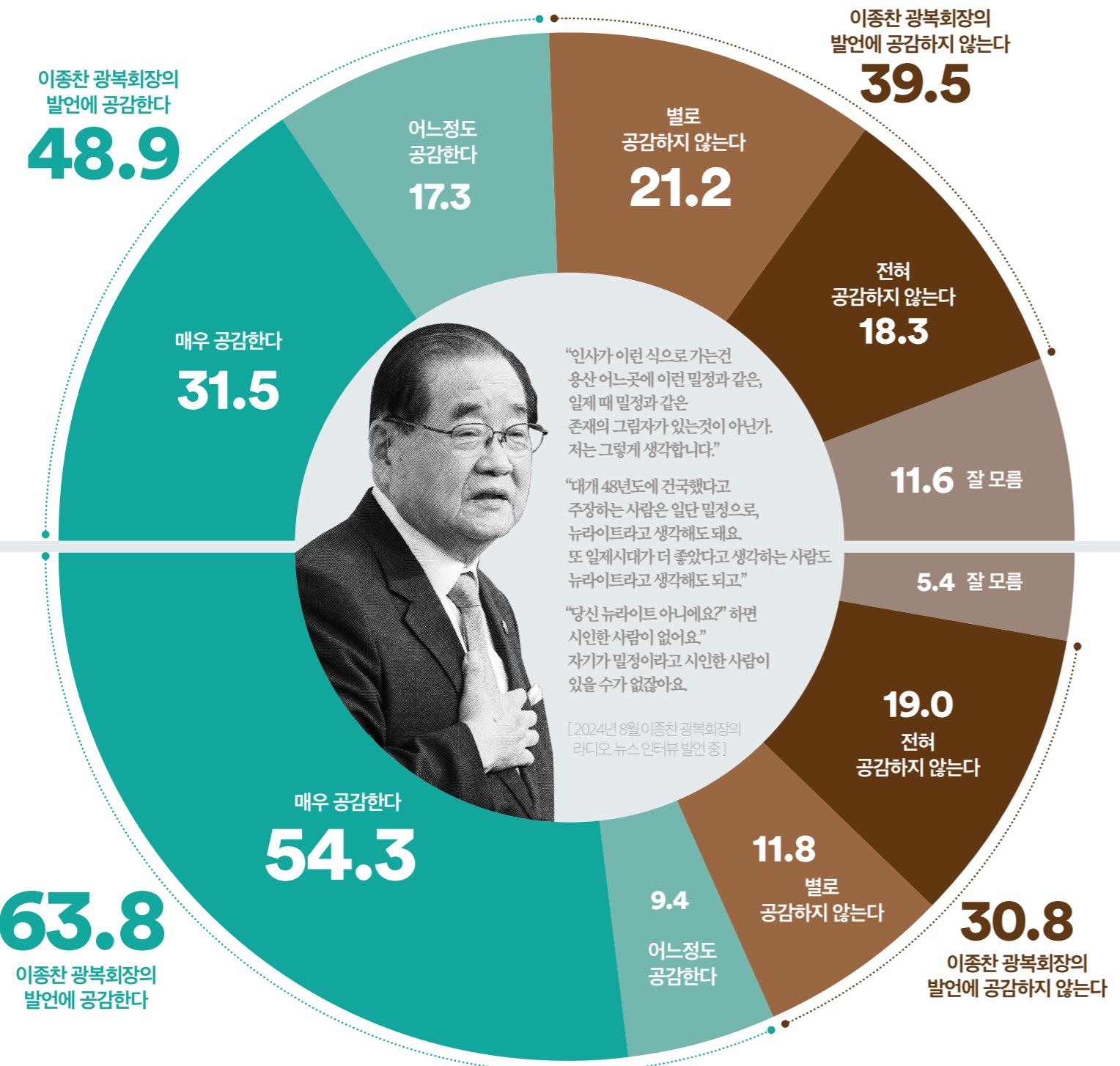
보수층은 CATI 조사에서는 ‘적절’ 36.2%, ‘부적절’ 51.3%로 ‘부적절’ 우세, ARS조사에서는 ‘적절’ 46.1, ‘부적절’ 37.9%로 ‘적절’하다는 응답 앞섰다

■ 적절하다 ■ 적절하지 않다 ■ 잘 모름

Q. 3대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장을 모두 뉴라이트 계열 인물이 차지하는 등

최근 역사 관련 인사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CATI조사는 10명중 4명 이상, ARS조사는 10명중 6명 이상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 CATI조사의 40~60대와 ARS조사의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의 경우 CATI조사에서는 ‘공감’응답이 6.3%p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공감’응답이 40.4%p 앞선

권역

서울	50.6	40.3	9.1
인천·경기	50.9	37.5	11.7
대전·충청·세종	46.5	42.7	10.8
광주·전라	53.6	34.9	11.5
대구·경북	46.9	42.7	10.4
부산·울산·경남	44.1	42.3	13.6
강원·제주	42.5	37.5	20.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8.4	26.4	5.2
국민의힘	24.8	59.5	15.7
조국혁신당	76.7	18.0	5.2
개혁신당	54.5	41.4	
진보당	49.5	33.6	17.0
그외 다른 정당	47.0	35.8	17.1
자지 정당 없음	24.1	50.6	25.3
잘 모름	36.9	35.5	27.7

성별



연령

18-29세	53.7	37.9	8.4
30대	69.7	25.7	
40대	74.1	22.2	
50대	72.3	25.3	
60대	67.4	30.6	
70세이상	40.3	46.6	13.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0.0	16.5	
국민의힘	28.8	64.4	6.9
조국혁신당	87.1		10.6
개혁신당	52.3	30.7	17.0
진보당	65.8	22.9	11.3
그외 다른 정당	40.0	53.5	6.5
자지 정당 없음	44.0	37.1	18.9
잘 모름	50.0		50.0

■ 공감한다 ■ 공감하지 않는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8_03

